

노인동거가족의 주택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¹⁾

A Study on the Stress in Housing of a Three generation Family

이 연 숙²⁾
Lee, Yeun - Sook
신 화 경³⁾
Shin, Hwa - K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scribe the stress in housing of a three generation famil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from 467 housewives living in a three generation family households.

Major finding were as follow:

The female elderly was the most popular type. Married children tended to live together with the forced feeling of responsibility rather than with a volunteering attitude. Many good points stemming from three generations living together, however, were recognized by the housewives. This will provide support to reevaluating the value of the elderly in this industrial society. They felt stress and expressed various undesirable behavioral adjustments and constraints in relation to the stress.

Several planning concepts including privacy, storage space, and soundproof were suggested to enhance the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family.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의 목적

노인동거주거는 노부모와 기혼자녀 세대 및 손자녀세대로 이루어진 가족이 함께 동거하는 주

거로 노인과 기혼자녀와의 동거율이 높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양권 국가에 많다. 그러나 한국의 노인동거가족주거문화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가진 노부모세대와 기혼자녀부부세대가 함께 거주함으로써 편안해야 할 주거가 오히려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근원지로 인식. 실제 이상으로 왜곡 오늘의 젊은 세대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합리지향주의적, 편리지향적인 현대인에게 협소한 주거환경은 확대가족제도의 유지를 어렵게 하며 종래 확대가족의 효용성을 상실하게 하

1) 본 연구는 (주)청구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2) 정회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교수
3) 정회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강사

였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동거주거는 실제 많은 교육적, 문화적, 인간심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핵가족화로 인한 사회적, 가족적, 인간적 문제 등 부정적인 시각이 지적되고 있으며 노인동거 가족이 함께 생활하면서 이루어던 전통주거문화를 아쉬워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과연 핵가족 주거문화가 산업화되어가는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도록 방지해도 좋은가 하는 각성과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선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측면에서 확대가족 주거문화 즉, 노인동거주거는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확대가족 주거문화가 회피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서나 문화 그리고 정책상으로 필요시되는 노인동거주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노인동거를 회피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노인동거가족의 주거내에서의 스트레스에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동거 가족을 위한 주거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인동거가족이 주거내에 느끼는 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물리적 건조환경 중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구조인 가족체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구조로서 가족원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Newmark & Thompson, 1977). 또한 주택의 물리적 환경이 영역성과 프라이버시 욕구를 좌절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 주택의 물리적 환경은 가족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며(Anthony, 1984), 거주자의 건강한 정신생활의 유지를 목표로 설계된 주택의 경우는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Chapin, 1981) 등 주택은 가족 치료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주택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물리적 환경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인간의 환경에

의 적응능력과 관계가 깊은 가족들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Zimring, 1981; Inman, 1987).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내에서의 프라이버시 조성 혹은 억제에 따라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조장 또는 방해하게 되고 결국 주택내에서 가족원의 갈등상황에 관계되므로 가족원의 정신건강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Chapin, 1981; Bayley, 1981).

주택의 공간 배치 및 구조와 같은 물리적 조건은 가족관계 및 가족의 기능과 더불어 가족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실제 노부모와 한집에 거주하는 것은 세대간에 여러가지 불편을 줄 수도 있지만 자녀세대가 노부모를 부양함으로써 노인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도모하며(임춘식, 1990; 서미경, 1990), 노인의 인생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병은, 1990). 또한 가족의 기능수행에 관한 연구 결과 노부모세대가 가족문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문제에 대한 치료로 노부모세대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동거가족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다양한 속성을 지니므로 특별한 물리적 조건의 배려없이 동거할 경우 주택내의 사회심리적 조건 및 물리적 조건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노인동거에 따른 단점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족원의 정신건강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 노인과의 동거에 대한 배려가 적은 현대의 집합주택은 확대가족 주거문화보다는 핵가족 주거문화를 확대시켜나가는 결과를 낳고 있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 내용

조사대상은 중산층⁴⁾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4) 중산층은 연구에 따라 그 폭이 전국민의 60%-90% 정도에 이룸

주부로 한정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노인동거상황, 노인동거시 장단점, 가족환경 분위기, 현주택에서의 생활감정, 주택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노인동거생활 적응행태 등에 관한 것이다.

2. 자료수집 및 처리

월간여성지인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한국형 노인주택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후속 노인주택에 대한 연구에 응답 협조를 표명하는 엽서를 회송하도록 하였다. 엽서를 회송한 협조가능한 주부를 대상으로 1991년 11월 16일 - 12월 3일까지 설문지를 답례품과 함께 송부하였고 1991년 12월 23일까지 연구자에게 반송된 것으로 제한하여 이때까지 반송된 578 부중 467부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으로는 SAS통계 패키지를 이용한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 x^2 검정,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II. 조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의 특성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동거상황 및 주택특성을 조사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가족수는 5인인 경우가 35.1%, 6인인 경우가 25.7%였으며 평균 5.6인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은 26-30세가 41.5%, 31-35세가 29.8%였으며 가족생활주기는 미취학기가 60.0%, 국민학교기가 23.6%로, 전반적으로 젊은 연령의 초기 가족단계에 있었다. 부모의 연령도 조부와 조모의 경우 55세 이하가 각각 47.3%, 62.0%로 나타나 비교적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특성으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45.5%, 단독주택거주자가 34.3%였으며, 현재 주택의 소유형태도 자택인 경우가 79.7%였다.

거주면적은 25평이하가 48.6%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하는 방수는 3개가 56.8%로 가장 많았다.

2. 노부모와의 동거상황

현재 주부의 위치는 만며느리인 경우가 61.7%, 만며느리 이외의 며느리가 31.0%로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양친(47.3%)이거나 편모(36.8%)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기간은 5년 이하가 66.1%, 6년-10년이 23.1%였으며 자녀가 원해서 동거한 경우가 57.3%, 다른 대안이 없어서 동거한 경우가 42.3%로 나타났다. 동거 이유로는 의무감에서가 57.8%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35.6%, 경제적 이유 때문이 28.9%, 심리적,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어서가 22.5%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시 심리적 부담감은 부담스럽다가 39.1%, 그저그렇다가 28.2%, 편하다가 32.7%로 나타나 동거시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노부모의 건강상태는 조부, 조모 모두 보통이거나 건강한 편이었으며 노부모의 생활 의존도는 가족이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45.2%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일을 노부모 스스로 하는 경우가 26.3%였다. 노부모를 도와 주는 사람은 주부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59.6%, 배우자와 주부가 공동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35.2%로 나타났다.

3. 가족환경분위기

가족환경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30개의 가족환경분위기 척도⁵⁾를 중심으로 현재의 가족환경분위기와 이상적인 가족환경 분위기를 지적하게 하였다. 30개의 가족환경분위기 척도는 각각 3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이를 다시 4단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5) 가정환경 분위기 척도는 행동과학 및 정신의학 분야의 배경을 가지고 Moos & Moos(1986)이 개발 표준화한 것으로 총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연숙외(1992)의 선행연구에서 단순화시킨 30개의 문항을 이용하였음

가족환경 분위기가 강하다고 한 경우와 비교적 있는 편이라고 한 경우를 합하여 보면 현재의 가족환경 분위기는 성취지향성(65.7%)과 결속력(51.7%), 표현정도(43.6%), 및 조직성(4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적인 가족환경 분위기는 오락지향성(79.9%)과 통제력(71.3%) 및 독립성(68.0%), 지적 문화적 지향성(67.2%), 결속력(6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가족의 가족환경 분위기 특성

분포	현재의 가족환경 분위기					이상적인 가족환경 분위기											
	강하다	비교적 있는 편이다	약하다	없다	평균	강하다	비교적 있는 편이다	약하다	없다	평균							
가족환경 특성	f	%	f	%	f	f	%	f	%	f							
결속력	105	23.2	129	28.5	177	42	9.3	4.9	149	32.2	137	30.0	169	37.1	3	0.6	4.3
표현 정도	84	18.5	114	25.1	153	33.7	7.4	1.9	91	19.7	150	32.5	179	38.8	41	8.9	4.6
조직 정도	46	10.1	119	26.2	194	43.7	20.9	4.3	39	8.4	248	53.7	168	36.4	7	1.5	4.7
독립성	31	6.4	95	20.1	218	48.0	24.2	4.0	146	31.6	168	36.4	138	29.9	10	2.2	4.9
성취 지향성	63	13.9	235	51.8	127	28.0	6.1	1.5	7	1.5	189	41.0	244	52.9	21	4.6	4.3
지적 문화적 지향성	40	8.8	84	18.5	208	45.8	26.9	4.0	152	33.0	158	34.2	142	30.7	10	2.2	4.9
적극적 오락 지향성	29	6.4	79	17.4	159	35.0	18.7	3.8	215	47.2	151	32.7	78	16.9	15	3.3	5.1
도덕적 종교 지향성	97	21.4	84	19.0	211	46.5	13.7	2.5	73	16.0	107	23.4	25.8	56.5	19	4.2	4.5
조직성	38	8.3	154	34.0	199	44.0	13.7	2.5	70	15.2	163	35.4	225	48.8	3	0.7	4.6
통제력	139	30.4	143	31.5	123	27.1	11.0	2.2	173	37.5	156	33.8	110	23.8	23	5.0	4.2

현재와 이상적인 가족환경 분위기와 의 전반적인 차이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는 〈표 2〉와 같이 차이가 난다고 응답한 경우가 49.7%,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1.0% 차이가 크다고 응답한 경우가 19.1%로 나타났으며, 가족환경 분위기의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환경 분위기에 대한 현재의 가족환경 분위기에 차이가 있으며 현재의 가족환경 분위기 점수가 이상적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러한 현상을 모두 노인동거로 인한 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노인과 동거하는 현재의 가족환경 분위기가 가족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간접적인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표 2〉 현재 가족환경 분위기와 이상적인 가족환경 분위기와의 차이

N = 467

가족환경분위의 차이	분포	f	%
차이가 매우 크다		44	9.5
차이가 크다		88	19.1
차이가 있는 편이다		229	49.7
차이가 없는 편이다		97	21.0
차이가 전혀 없다		3	0.7
계		411	100.0

4. 노인 동거생활의 장단점 인식정도

노인동거시 느끼는 장점과 단점의 각 항목에 대한 지적 및 순위 조사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노인동거시 장점으로 많이 지적된 것은 '부모를 모시고 살므로 멋뻐하다'가 7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하여 마음이 편하다'가 71.0%,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쉽게 대처할 수 있다'가 70.0%, '손자녀 돌보는 일에 도움이 된다'가 66.3%, '서로 의지가 되므로 마음이 든든하다'가 63.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가장 좋은 장점의 순위로 우선순위 3위까지를 살펴보면 역시 1순위로 지적된 것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므로 멋뻐하다'가 29.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녀의 도리를 다하여 마음이 편하다'가 14.3%, '서로 의지가 되므로 마음이 든든하다'가 13.2%로 나타났다. 노부모와의 동거가 주는 장점은 심리적인 안정이 우선으로 지적되며 이외에 실질적인 경험적 도움이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인동거시 단점으로 지적된 것으로는 '부부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가 73.3%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외출시 신경이 쓰인다'가 72.0%, '개인생활을 하기 어렵다'가 71.2%, '의견충동등 세대간 이해가 어렵다'가 63.2%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불편을 느끼는 순위로 3위까지를 살펴본 결과, 1순위에서는 '서로 눈치를 봐야한다'가 22.2%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다음으로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로 의견충동이 있다'가 12.4%, '부부만의 시간을 갖기 어렵다'가 11.7% 지적되었다.

〈표 3〉 노인동거시 장점

(N=467) (N=448) (N=444) (N=444)

장점	분포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f	%	f	%	f	%	f	%
맛있다		365	78.8	130	29.0	29	6.5	24	5.4
마음이 든든하다		297	63.6	59	13.2	33	7.4	29	6.5
자녀도리틀 더하여 마음이 편하다		329	71.0	64	14.3	59	13.3	38	8.6
가문 및 전통이 계승된다		171	37.0	3	0.7	7	1.6	11	2.5
세대간 문화가 전달 교류된다.		276	59.6	15	3.4	31	7.0	20	4.5
상호가 배울점이 많다		289	62.4	16	3.6	24	5.4	31	7.0
친척간 유대가 증진된다		264	57.0	16	3.6	43	9.7	25	5.6
손자녀의 정서생활이 좋다		211	45.6	4	0.9	2	0.5	12	2.7
세대간 유대를 증진시킬 수 있다		286	61.8	15	3.4	22	5.0	28	6.3
경로표진 사상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		250	54.0	10	2.2	15	3.4	27	6.1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101	21.8	5	1.1	9	2.0	16	3.6
장애에 걸리는 시간 노력을 줄일 수 있다		219	47.3	13	2.9	11	2.5	17	3.8
주택비가 해결된다		17	3.6	0	0.0	1	0.2	1	0.2
공간이 넓어진다		101	21.8	5	1.1	1	0.2	10	2.3
부모간 긴장이 완화된다		193	41.7	9	2.0	22	5.0	15	3.4
가사일이 도움이 된다		307	66.3	29	6.5	57	12.8	45	10.1
손자녀 돌보는 일에 도움이 된다		278	60.0	13	2.9	18	4.0	43	9.7
부모님 건강관리 보호에 유리하다		324	70.0	40	9.0	39	8.8	49	11.0
어려운 사정발생시 쉽게 대처할 수 있다									

〈표 4〉 노인동거시 단점

(N=467) (N=443) (N=440) (N=438)

단점	분포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f	%	f	%	f	%	f	%
눈치권 봐야한다/마음을 터놓고 지내지 못한다		329	71.1	98	22.2	30	6.8	31	7.1
긴장하고 불안하다		250	54.0	35	7.9	40	9.1	16	3.7
요구사항이 많아진다		190	41.1	10	2.3	7	1.6	11	2.5
의견충돌이 있다/세대간 이해가 어렵다		292	63.2	55	12.4	41	9.3	27	6.2
잔소리나 간섭이 있다		216	46.8	13	2.9	20	4.6	10	2.3
주도권 다툼이 있다		53	11.5	2	0.5	0	0.0	4	0.9
한세대에 의존성을 높게 된다		100	21.6	3	0.7	5	1.1	4	0.9
친척간 교류가 많아 부담스럽다		172	37.2	10	2.3	17	3.9	15	3.4
종교생활에 제약이 있다		71	15.4	4	0.9	8	1.8	4	0.9
생활비 지출이 많다		197	42.6	12	2.8	14	3.2	18	4.1
공간이 협소하다		239	51.6	15	3.8	17	3.9	18	4.1
세대간 선호주택이 다르다		112	24.2	1	0.3	6	1.4	2	0.5
방이나 화장실 문을 열어 놓고 사용하는 등 생활방식이 다르다		221	47.7	9	2.3	14	3.2	13	3.0
실내장식에 대한 의견, 취향이 다르다		224	48.5	2	0.5	12	2.7	14	3.2
프라이버시에 제약이 있다		329	71.2	42	10.6	50	11.4	52	11.9
부부만의 시간을 갖기 어렵다		338	73.3	46	11.7	45	10.2	40	9.1
생활시간대가 다르다		176	37.9	6	1.5	6	1.4	3	0.7
의생활 방식에 제약이 있다		169	36.4	2	0.5	0	0.0	4	0.9
식생활 방식에 제약이 있다		229	49.4	3	0.7	11	2.5	20	4.6
손님초대에 제약이 있다		288	62.1	9	0.7	17	3.9	25	5.7
외출시 신경이 쓰인다		334	72.0	21	4.6	31	7.1	44	10.1
TV제출을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한다		71	15.3	3	0.7	3	0.7	6	1.4
가사일이 더 늘어난다		245	52.8	5	1.1	17	3.9	18	4.1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줄어든다		100	21.6	2	0.5	6	1.4	10	2.3
자녀교육 방식이 다르다		240	51.7	23	5.2	23	5.2	29	6.6

노인동거시 느끼는 장단점 비중과 앞에서 제시된 19개의 장점과 25개 단점에 대한 수리적 장단점 지적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노인동거의 장단점에 대한 주관적 비중은 비슷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7.8%, 단점이 많다고 한 경우가 35.4%,

장점이 많다고 한 경우가 26.8%였다. 또한 장단점 지적 비율을 계산하여 장점 대 단점 인식 패턴을 조사한 결과, 장점이 단점보다 60.0%이상 높은 경우를 장점이 월등히 높은 편이라 했으며 단점이 장점보다 40.0%이상 높은 경우 단점이 월등히 높은 것이라 하였다. 그 결과 장점 지적 비율이 단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우가 6.7%, 단점 지적비율이 장점 지적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가 7.7%였으며 서로의 지적 비율이 비슷한 것이 85.6%였다. 이는 노인동거의 단점을 없애기 위해 별거할 경우 노인동거의 장점을 잃게 되며, 장점을 취하기 위해 동거하면 단점을 고수해야 하는 갈등상황을 겪게 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노인동거가족을 위한 주거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5. 노인동거 주거내에서의 스트레스

1) 현주택에서의 생활감정

현주택에 대한 생활감정으로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주택에 대한 만족정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현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는 보통이 51.0%, 만족이 27.1%, 불만족이 15.0%였으며 주택에 대한 만족정도는 보통이 37.4%, 만족이 37.2%, 아주만족이 12.5%로 나타났다.

〈표 5〉 현주택에서의 생활감정

N=465

구분	항목	f	%
생활에 대한	아주 만족	28	6.0
	만족	126	27.1
	보통	237	51.0
만족정도	불만족	68	15.0
	아주 불만족	6	1.3
주택에 대한	아주 만족	58	12.5
	만족	173	37.2
	보통	174	37.4
	불만족	56	12.0
만족정도	아주 불만족	4	0.9

2) 주택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주택 특성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표 6〉과 같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한 경우, 사생활 침해공간구조가 49.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납공간의 부족이 47.4%, 방음

이 40.9%, 주택의 규모 39.9%, 욕실의 수가 3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동거 가족의 스트레스 요인이 사생활 침해 상황과 규모에 깊은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노인동거 가족을 위한 주거 계획시에는 시각적, 청각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 및 공간감을 최대한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6> 현주택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N = 467

주택 특성	스트레스를 많이 느낌		비교적 스트레스를 느낌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음		계	
	f	%	f	%	f	%	f	%
주택규모	185	39.9	201	43.3	78	16.8	464	100.0
방의 수	144	31.5	183	40.1	130	28.5	457	100.0
수납공간 부족	220	47.4	184	39.7	60	12.9	464	100.0
사생활 침해구조	229	49.4	179	38.6	56	12.1	464	100.0
방음	190	40.9	193	41.5	82	17.6	465	100.0
환기조절	135	29.0	200	43.0	130	28.0	465	100.0
욕실 수	182	39.4	168	36.4	112	24.2	462	100.0
주택설비 및 시설	147	31.8	225	48.6	91	19.7	463	100.0
거실의 크기	129	27.8	170	36.6	165	35.6	464	100.0
부엌협소 및 거실과의 연결형태	164	35.3	177	38.1	123	26.5	464	100.0

3) 동거생활의 적응행태 특성

노부모와의 동거를 하면서 이에 적응하기 위한 행태 특성을 보면 <표 7>과 같이 '자신이 내는 소음의 수준에 신경이 쓰여 줄였다'가 86.6%로 가장 많았으며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보는 사람이 부담스러울까봐 주저하였다'가 79.0%, '취미나 실내활동을 줄였다'가 65.0%로 나타나는 등 주로 긍정적인 적응보다는 부정적인 적응행태가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생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주거계획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배려가 요구된다.

<표 7> 노인동거생활시 적응행위

N = 467

적응행태	분포	f	%
자신이 내는 생활소음의 수준에 신경이 쓰여 줄였다		394	86.6
상절이나 벽화점 등에서 더욱 자주 소경을 한다		73	16.0
취미나 실내활동을 줄였다		297	65.0
가족들간에 가사일을 분담했다		216	47.4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다		170	37.0
실내를 개조하였다		149	32.5
시간사용 계획을 세웠다		262	57.5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였다		245	53.5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보는 사람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주저하였다		364	79.0

4) 동거로 인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구조

노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노부모 동거시 심리적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 검토와 선행연구를 통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14개 변인을 선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1단계 중다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0.05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나온 변인들을 이용하여 정식 모델을 설정한 후 다시 이를 2단계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2단계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노부모 동거시 심리적 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노부모 동거시 장단점 비중 인식정도,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 현 가족환경 분위기 중 결속력과 통제력, 노부모 중시도, 노부모 동거시 생활적응 정도 등이다. 즉, 노부모와의 동거시 장점보다 단점에 대한 지적이 많을수록,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현재 가족환경 분위기 중 결속력이 낮을수록, 또한 통제력이 낮을수록, 노부모 중시도가 낮을수록, 노부모동거로 인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발생하는 행태가 많을수록 심리적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은 노부모 동거시 심리적 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8> 노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2단계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최도방향)	종속변인	부모동거시 심리적 부담감
수입(적음 - 큼)		-0.147
가족구성(원부)		-0.166
노부모 중시도(높음 - 낮음)		-0.064**
주부의 가족내 위치(만머느리 이외의 경우)		-0.2230
결속력(높음 - 낮음)		.1097**
적극적 오락 지향성(높음 - 낮음)		.0626
통제력(높음 - 낮음)		-0.0982**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만족 - 불만족)		-.1296**
노인동거시 장단점 비중인식 정도		.5512**
(상점 많음 - 단점 많음)		
노인동거시 생활적응 정도(적음 - 많음)		.0507*
1인당 갖는 주거면적(적합 최소면적)		-0.0616
Constant		3.2366***
r = 0.4754	F = 36.085***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 .01수준에서 유의적임 *** .001수준에서 유의적임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의 유형은 편모의 비율이 높으며 아들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일반적이다. 동거하는 이유는 자발적인 특성보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경향이 높았다. 또한 노인의 생활의존도가 높은 경우 생활을 도와주는 것은 대부분이 며느리이므로 노인문제는 여성문제와 크게 연결이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족분위기 특성으로 통제력이 현재와 이상적인 가족환경분위기 둘 다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거의 모든 측면에서 현재 분위기와 이상적인 분위기에 차이를 보이며 현재의 분위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보다 낮게 지적된 것은 그 원인이 모두 노인동거에서 기인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어느정도는 노인동거에 기인한 것이며 이것이 생활상의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노인동거시 장단점 인식 정도에서 아직도 한국사회가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람직하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좋은 면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이와 동시에 서로 눈치를 보거나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의견충돌이 동거시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 동거로 인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노부모에 대한 중시도, 가족의 결속력에 대한 가족환경 분위기, 노인동거에 대한 장단점 비중인식 정도, 노인 동거시의 생활적응도 및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등으로 가족의 수입이나 주거의 면적 등 물리적인 요인보다 사회심리적인 요인이 노인동거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더 비중있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노인동거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노인 동거의 장점은 재확인하여 부각시키고 이 장점이 노인의 위상을 달리할 수 있는 교환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단점은 양세대 모두에게 계몽하여 세대간의 이해가 쉬워지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견지를 넓혀 주는 프로그

램의 개발로 경감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노인 동거 가족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사생활 침해의 공간구조, 수납공간의 부족, 방음, 주택규모, 욕실의 수 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노인동거가족을 위한 주거를 계획할 때는 세대간의 사생활 보호가 원활히 되는 공간구조 및 방음을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규모도 중요하나 이는 거주자의 경제적인 상황과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계획에서 규모를 반영할 수는 없으나 같은 면적이라도 더 공간감있게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서미경, "노인의 정신건강과 부양의 원충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0, 1990, 68-86
- 이연숙, "삼대가족의 생활상", 연세논총, 28, 1992
- 임춘식,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유평출판사, 1991
- 조병은, "부모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 1990, 105-124
- Anthony, K. H. "Moving Experiences: Memories of Favorite Homes",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Association, 1984, 141-149
- Bagle, C. "The Built Environment as Influence or Personality and Social Behavior: A Spatial Study", 1981
- Chapin, F. S. "Some Housing Factors Related to Mental Hygiene", 1981
- Inman, M. "Influences of Life Cycle Stage on Family Social Climate and Attitudes towar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Resources in Education, 1987, 10
- Moos, R. & B. Moos. "A Typology of family Social Environment", Family Process, 15, 1986, 357-371
- Newmark, N. I. & P. J. Thompson. "Self, Space, and Shelter: Introduction to Housing", Sanfrancisco:Caufield Press, 1977

